

오피니언

월/요/광/장

정준모



일전 광주일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광주·전남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에버랜드 한 곳을 찾는 외국인 숫자에도 이르지 못한다. 이 건 분명 통계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간 광주·전남지역은 광주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광주영화제,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등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유치 또는 개최하면서 지역을 알리는데 매우 열심이었...

것이다.
우선은 기사에 의하면 인프라의 구축 특히 국제선 취항노선이 유일하고 도로와 철도의 빈약한 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원인은 필지언정 빈약하기 그지 없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설명해줄 수 있는 특급호텔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도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이유의 모두...

텐트와 게르의 차이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하다. 사실 1995년 광주비엔날레를 시작할 당시의 일이다. 외국의 미술관 및 작가들과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광주라는 곳을 알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광주와 중국의 광저우가 서로 다른 도시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데는 더욱더 시간을 소모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지간히 홍보에 공을 들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없더니 역시 세상은 넓은 것임에 분명하다.

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교통이 편해서 북유럽 오지의 피오르드나 아프리카를 찾고 때로는 안데스 산맥을 여행하며 인도를 방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내여행에서도 많이 나가지는 했지만 예를 들자면 흥도를, 울릉도를 서너 시간의 배길에 멀미를 감수하면서도 찾지를 않는가 말이다. 그런 곳에 비하면 광주·전남지역은 매우 훌륭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광주·전남지역을 찾는 외국인 손님이 없는 이유를 넓은 세상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터. 그 원인이 찾아보고 이모저모 처방책을 찾아보아야 할

때 숙박시설의 빈약함은 사실이고, 확충되어야 할 기본 인프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지중미술관으로 유명한 나오시마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몽고인들의 주거용 텐트인 몽고텐트 즉 게르촌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수용하고 있다. 물론 올해도 전남지역의 많은 해수욕장이 이런 게르촌을 만들어 이색체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도는 게르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본의 게르가 몽고인들의 주거지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몽고텐트라는 텐트 개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텐트처럼 필요 의해서 찾다가 필요가 다하면 철거하면 그만이라는 이동의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칭도 일본의 그것이 몽고 게르촌인데 반해 몽고텐트촌이라고 불린 것이리라.

하지만, 우리의 게르촌과 일본의 게르촌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우리 게르촌은 몇 년전까지 베니어판으로 지어놓았던 무늬만의 방갈로에 다를 아니다. 게르의 내부를 들어가 보면 예전의 텐트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좀더 튼튼해졌다는 것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설치가 쉽고 태풍이나 시즌이 지나면 쉽게 철거할 수 있다는 관리의 편의성으로 인해 게르촌이

물론 게르를 설치해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대체하려는 아이디어와 노력은 가상한 것이다. 아마도 담당 공무원들은 현지에 출장을 가서 현황을 파악하는 수고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직접 숙박을 하면서 편한 점과 불편한 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반영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사진을 찍어온 수고를 빠뜨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담당자가 아닌 연발 위촉출장을 간 공직자가 우연히 보고 아이디어를 낸 결과 외형은 흡사한데 내용은 탄 관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생겨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게르촌은 철저하게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반영구적인 숙박단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결한 화장실과 샤워시설은 기본이고 양질의 식단을 갖추고 있고 매일 청소는 물론이고 룸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호텔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요자의 필요와는 달리 판매자의 편의가 우선되다 보니 좀 수월하게 다루어진 대목도 없지 않을 터. 텐트와 게르라는 같지만 다른 낱말 때문에 빚어진 의식과 태도의 차이가 이따지도 큰 것일까.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올 때는 완벽하게 똑같이 베껴오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내 것으로 자동차 튜닝하듯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차이는 운영과 운영자의 태도이다. 우리의 게르촌과 일본의 게르촌의 차이는 우리 게르촌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는 사람들의 편리가 중심이라면 일본의 그것은 수요자의 필요와 편의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태

<미술비평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문재인 카드’ 뇌관 남긴 당·청 갈등 봉합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6일 오찬 회동을 통해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청·정 협의회를 재가동키로 합의했다.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던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양보해 협의 시스템을 복원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합의안 도출이 공동운영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문제에 대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유감일 수 없다. ‘문재인 카드’는 당·청 갈등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뇌관’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당·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운영체라 할 수 있다. 당·청이 불화를 빚으면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판단해 국민여론을 인사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를 계속해서 민심을 회복할 수 없다. 여론을 외면하고 ‘원칙’과 ‘오기’만을 앞세워서는 여론 전체가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사사건건 총연히 보고 아이디어를 낸 결과 외형은 흡사한데 내용은 탄 관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판단해 국민여론을 인사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를 계속해서 민심을 회복할 수 없다. 여론을 외면하고 ‘원칙’과 ‘오기’만을 앞세워서는 여론 전체가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혈세 낭비’ 드라마세트장 유치 신중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에 나섰던 드라마세트장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와 시민단체들이 지난 4일 개최한 ‘제2회 예산낭비 대응 포럼’에서 자치단체들이 드라마 세트장 유치에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 예산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드라마 세트장 유치를 사활을 거는 것은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한탕주의와 단체장의 생색내기식 전시행정 때문이다. 특히 수십억원의 제작비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행정지원을 받는 등 썰렁 먹고 알 먹는 제작사의 장사속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지자체의 비전문성도 문제다.

지자체의 드라마세트장 유치 경쟁은 태조 왕건, 겨울연가 등 일부 드라마 촬영지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거액을 들여 세워진 드라마 세트장은 설령 드라마의 인기로 힘입어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하더라도 종영된 후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겨 예뻐만 지로 전락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드라마 세트장 유치를 사활을 거는 것은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는 한탕주의와 단체장의 생색내기식 전시행정 때문이다. 특히 수십억원의 제작비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행정지원을 받는 등 썰렁 먹고 알 먹는 제작사의 장사속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지자체의 비전문성도 문제다.

이날 포럼에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거론된 ‘사랑과 야망’ 드라마세트장도 순천시 시·도비 등 총 63억원을 지원했으나 관람객 수는 예초 예상의 절반 수준인 750명에 불과했다. 특히 전 날도는 투·유자 심사 과정도 거치지 않

다. 그런 카스트로도 세월만큼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일시적이라지만 건강을 이유로 동생이자 평생 혁명동지인 라울 국방장관에 권력을 넘겼다. 볼세hevik의 혁명가라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극단을 오가는 그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無等鼓

“아비한 독재자의 광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감옥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 유죄판결을 내려라.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할 것이다.” 정부 전 혁명의로 법정에 선 피델 카스트로는 이렇게 끝나는 유명한 최후 진술을 남겼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티스타 정부군과 미연된 동지들의 배신이었다. 대부분 살해당하고 남은 사람은 불과 12명. 피델과 그의 동생 라울, 그리고 저 유명한 체 게바라 등이었다.

32살의 나이에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조국에 혁명을 선봉한 잘 생긴 사나이. 현란한 제스처와 열광적인 웅변, 구레나룻수염과 커다란 시가는 카리스마를 더했다. 혁명의 열풍이 몰아치던 1960년대 카스트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다.

카스트로 등은 밀림지대인 시에라라에스트라 산맥으로 숨어 들었다. 수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게릴라전이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마음을 파고 드는 마오쩌둥(毛澤東)식 심리전으로 혁명 지지 세력을 넓혀갔다. 쿠바 상륙 이후 2년만인 1959년 2월 바티스타 부패 정권은 무너졌다.

카스트로에 대한 환호는 수십명으로 막강 정부군을 무너뜨린 신화같은 얘기, 즉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사실 카스트로의 혁명은 무모하리만큼 즉흥적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카스트로 혁명군의 쿠바 상륙. 1956년 11월 멕시코를 출발한 81명의 혁명전사들이 ‘그란마’라는 낡은 배를 타고 쿠바 오리엔테주 해안에 상륙했다.

카스트로는 이후 47년여 동안 견고하게 쿠바를 지배해왔 다. 그런 카스트로도 세월만큼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일시적이라지만 건강을 이유로 동생이자 평생 혁명동지인 라울 국방장관에 권력을 넘겼다. 볼세hevik의 혁명가라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극단을 오가는 그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피델 카스트로



기고

김중원



최근 우리는 주5일 근무와 휴가철을 맞이 하여 공공시설을 자주 찾게 된다. 공공시설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공의 편의나 복지 따위를 위하여 배려하여 놓은 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용실서는 “시설을 이롭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일정한 규칙”이다.

이용하는 고객들도 쾌적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고객들이 주인이라는 주체적임을 갖고 항상 내 집처럼 이용한다면 다음에 찾아오는 고객에게 깨끗함을 제공하게 되어 기본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터미널의 공공시설은 남녀, 노소가 시간제한 없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실서의 준수가 더욱 요구 되는 장소이다. 성인들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에티켓

버스 터미널은 문화수준 지표

얼마 전 목포 종합 버스터미널의 현대화 공사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단장된 공공의 시설물에 대한 우리들의 이용실서 수준은 어느 정도일가를 생각해 본다.

이용하는 고객들도 쾌적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고객들이 주인이라는 주체적임을 갖고 항상 내 집처럼 이용한다면 다음에 찾아오는 고객에게 깨끗함을 제공하게 되어 기본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터미널의 공공시설은 남녀, 노소가 시간제한 없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실서의 준수가 더욱 요구 되는 장소이다. 성인들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에티켓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데나 버려지는 담배꽂이, 휴지 조각들, 먼지 버려져 있는 곳에 줄지는 못할 망정 그곳에 따라서 버려져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는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그래도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의식 수준이 조금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그 수준은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터미널 환경은 그 지역을 찾아가는 여행객에게 첫 관문으로 그 지방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간직하게 된다. 따라서 터미널의 공공시설과 이용실서는 그 지역에 대한 유 무형의 홍보공간으로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되고 고객들의 이용실서 수준이 높다면 그 지역을 찾아가는 관광객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금호고교 목포영업소장>

인권 모독 불법 광고물 철저히 단속해야

도로를 지나다보면 외국인 결혼 알선 광고물을 가끔 보는데, 광고 내용이 지나치게 여성을 비하하거나 상품화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다만 과연 자녀들을 한국 농촌에 시집을 보내고 싶을까. 외국 여성들을 비하하는 광고 문구는 자체해야 한다. 이들 여성들도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상품처럼 다루어서 안된다. 불법 광고물이라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준영·광주시 서구 마죽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김윤선



조선시대 억울함을 당한 백성들이 하늘 같은 임금에게 적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고였다. ‘동동동’ 북이 울리면, 궁궐에 있는 임금이 몸소 민중들의 한을 풀어준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물지마’ 형 ▲도망간 사람을 찾아달라는 ‘찾아줘’ 형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만 찾아주면 된다는 ‘황당’ 형 ▲수사기관을 채권추심기관으로 착각한 ‘헛갈러’ 형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고(허위고소)’형 등이 상당히 많다. 올해 상반기에만 광주지검에서 무고로 기소된 사람만 6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시대 신문고는 예상과 달리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조선 후대로 갈수록 유명무실화 됐다고 한다. 신문고처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국가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소(발)제도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고소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광주지검에서 무고로 기소된 사람만 60여명에 이른다. 고소가 될 경우 피고소인은 대한민국 법제상 곧바로 피의자가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자가 된다. 이럴 경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겪게

고소(告訴) 유감(遺憾)

고소사건은 약 1만8천건에 달하며, 피고소인은 약 4천명에 이른다.

되는 죄없는 피고소인의 고충과, 남발하는 고소사건으로 인해 정말 억울한 고소인의 사건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고소사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 절해야 하는 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이 가운데 고소인의 의견이 옳다고 인정되어 기소된 건수는 전체 고소 건수의 16%인 3천500여건(3천900여명)에 불과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는 고소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연구중에 있다. 그 성과중 하나로 최근에 고소장 표준서식이 개발됐다. 고소인의 효율적인 권리구제 및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발이 내딛어진 것이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고소장이 널리 사용되고 다듬어지면서 고소사건에 대한 국민적 지혜가 모아질 기대해 본다.

피고소인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종지 불기소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80% 이상의 사람들이 아무런 법적 잘못 없이 고소를 당한 셈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까다로운 절차로 유명무실했던 조선시대 신문고와 달리, 현대의 ‘고소(발)’ 제도는 그 남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고소란, 잘못이 있는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다. 나로 인해 어떤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중을 기울여야 부족하다. 하지만, 정작 고소 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에어컨 세기조절도 안돼 불만

며칠 전 시내버스를 탔다가 세계 틀어놓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한기가 느껴지고 머리가 아팠다.

기 위해 송풍 방향을 바꿀 수도 없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버스기사에게 에어컨 세기를 조절해 달라고 했더니 시내버스는 조절장치가 없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켜거나 끄고 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관광 버스처럼 찬 바람을 쐬지 않

▲오정환·광주시 광산구 오성동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체육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